

호시노재심 뉴스 186 후 2012년 11월 15일 발행



후쿠시마·오키나와의 분노와 일체에서
옥중 38년 타파해라



11·23 호씨노재심전국집회의 호소

발행 호시노씨를 되찾자! 전국재심연락회의

연락처 〒105-0004

도쿄도 미나토구 (港区) 신바시(新橋) 2-8-16 이시다(石田)빌딩 4층
2-8-16

Sinbashi, Minato-ku, tokyo, IshidaBldg4F

TEL 03-3591-8224 FAX 03-3591-8226

e-mail :qq8ucd9@dream.ocn.jp URL <http://fhoshino.u.cnet-ta.ne.jp/>

모이자! 11.23 전국집회

모든 증거개시에 찬동한 변호사 135 명

칸사이(関西)레미콘지부에서 1800 명의 서명

무죄인 호시노 후미아키(星野 文昭)씨의 재심 개시를 향해 증거개시 대운동이 크게 전진을 개시했습니다. 모든 증거의 개시를 요구하는 싸움은 그정의성에 의해 많은 사람들을 얻고 운동에 찬동하는 전국의 목소리가 커다란 소용돌이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변호사 분들이 계속해서 찬동의 뜻을 보내 이미 135 명이 넘었습니다. 칸사이(関西)의 노동조합 "전일본 건설운송연대 노동조합 칸사이지구 레미콘지부"로부터 1800 이 넘는 서명을 받았습니다. 전국 각지의 회화전이나 호시노집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동료.친구.가족등으로 부터 수십개의 서명을 모아 보내주고 있습니다.

모든 증거개시 대운동의 찬동을 전국에서 모으자

토쿄 고등재판소의 와카하라 마사키(若原 正樹)재판장은 호시노(星野)씨의 무죄를 완전히 명백하게 한 제 2 차 재심청구를 짓밟고 기각했습니다. 호시노씨와 변호단이 요구하는 6 명의 민간 목격자의 흥술조서의 개시에 응하지는 않고 부당한 기각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츠쿠시마(巖島)감정은 Kr 씨나 Ao 씨의 흥술조서는

인간의 기억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수사당국의 작문이라는 것을 심리학의 과학적 지견을 바탕으로 명백하게 했습니다. 기각결정은 그것을 비웃드시 "부당한 유도가 아닌한 유도는 기억환기에 효과적이다"라며 검찰관에 의한 날조를 용인하며 찬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심을 개시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앞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호시노씨의 무죄를 선명하게 한 보충서를 9 월 28 일에 제출했습니다. 호시노씨는 권력범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폭거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며 혼신을 다한 분노를 터트리고 있습니다. 검찰관이 몰래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를 개시하면 자신의 무죄는 반드시 밝혀진다며 불퇴전의 결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호시노씨의 결의에 부응해 가족.변호단.공동대표가 발신한 "모든 증거개시를 요구하는 서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호소는 전국의 뜻있는 사람들의 찬동을 얻어내어 계속해서 서명이 오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를 11.23 호시노재심 전국집회에 모으자.



10. 18 제 3 파 토쿄고등재판소 포위 데모

후쿠시마(福島).오키나와(沖縄)의 분노와 하나로 옥중 38년을 타파하라

지금 세상은 분노와 싸움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3.11 대진재와 후쿠시마원전 대사고는 국철분할.민영화가 강행된 이후 신자유주의의 공격에 의해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을 들추어 냈습니다. 전세계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분노가 폭발해 살기위한 싸움의 궤기가 솟구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국회와 수상관저앞으로 밀려오는 몇십만명의 싸움은 바야흐로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싸움을 중심으로 반수 이상이 비정규직을 강요받고 있는 청년이 서 있습니다. 3.11 이후 들추어진 현실을 통해 "모든것이 거짓이었다"며 진정한 사실을 파악해 이사회를 뿌리부터 바꾼다며 싸움에 참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철치바(千葉)동력차 노동조합에 집결한 노동자는 자신에게 들어닥치는 외주화공격을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떨어트리는 공격이라며 "외주화저지. 비정규직철폐"를 내걸고 파업에 나섰습니다. 호시노씨의 무죄를 명백하게 하는 모든 증거개시 대운동도 이싸움과 하나입니다. 호시노씨 해방의 싸움이야말로 "해고철폐! 외주화저지.비정규직 철폐!"의 싸움의 선두에 서서 11.4 전국 노동자 총궐기집회에 전력을 다해 집결합니다. 또한 "모든 원전을 폐로로! 피폭노동을 용서치 말라!"라는 표어 아래 11.11 원전 반대 100 만명 대점거투쟁을 전력으로 싸웁시다. 새로운 정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11.23 호시노재심 전국집회를 여지껏 없었던 대집결로서 쟁취합니다. 호시노씨를 되찾자.

카쿠노 미키코(客野 美喜子)씨에게 묻는다

고빈다씨 재심승리의 길



8 월 7 일 재판소앞에서 보고를 하는 카쿠노씨(우측)

10 월 29 일 1997 년 "토쿄전력 여성사원 살인사건"에서 날조당해 무기징역이 확정 되어있던 고빈다.프라사드.마이나라씨의 재심 제 1 회 공판이 토쿄고등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판결은 11 월 7 일 틀림없이 무죄입니다. "무죄의 고빈다씨를 지원하는 모임"의 사무국장이신 카쿠노 미키코(客野 美喜子)씨에게 여쭙었습니다.

고빈다씨의 지원활동을 시작한 자초지정 부터 알려 주십시오

저는 1994년 6월 부터 도쿄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외국인에게 면회를 하는 자원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 7월 고빈다씨가 일심무죄 인데도 재구류(勾留)당해 의기 소침해 있다고 들어 처음으로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나는 하지않았다. 살려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같은해 연말 이심에서 역전유죄가 되고말았습니다. "이사람은 무죄다"라고 확신하고 이듬해 3월 "무죄의 고빈다씨를 지원하는모임"을 결성 했습니다. 2003년에 무기징역 판결이 확정해 고빈다씨는 요코하마(横浜)형무소에 이송 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겨우 "신원보증인"으로서 정기적인 면회를 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감옥법의 폐지에 의해 면회제한이 완화되어 지원자가 면회를 할 수 있던 시기도 있었습시다만 (30명이상) 2008년 부터는 다시 제한이 강화 되어 신원보증인인 나와 지원자 한명만 면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지원에도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부인인 라다씨는 2001년 부터 10번 이상 면회를 위해 일본에 오고 있습니다. 고빈다씨가 가족일로 걱정을 앓하도록 의료비나 학비도 가능한한 지원해 왔습니다.

재심의 자초지정을 알려주십시오

2005년에 재심청구를 한후 재판장이 몇명이나 바뀌고 별로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만 2009년경 부터 재판소가 겨우 증거개시(특히 DNA 감정)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아시카가(足利)사건의 영향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작년 7월 "다른 사람의 범행"임을 증명하는 충격적인 DNA 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몸에 남아있던 체액이 고빈다씨의 것이 아닌 다른사람의 것으로 현장에 유류품으로 남아있던 음모의 DNA 형과 일치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검찰과 검찰은 "고빈다범인설"에 계속해서 고집해 9월이 되자 갑자기 가지고 있던 42점을 제시했습니다. 그 DNA 감정에서 역전을 노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꿩꿩이와는 달리 고빈다씨의 DNA는 전혀 검출 되지 않고 고빈다씨의 무죄가 한층더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재심개시를 쟁취했내요

올해 6월 7일 재심개시 결정이 정해졌습니다. 형의 집행 정지도 인정되어 고빈다씨는 귀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월 7일 이의심의도 어의없게 종결되어 재심개시가 확정 되었습니다. 그후 피해자의 손톱에서도 다른사람의 DNA 형이 검출되기에 이르자 드디어 검찰도 유죄주장을 취하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10월 29일 첫 공판에서 검찰은 무죄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사건의 재검증도 고빈다씨에 대한 사죄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증거개시의 의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 3.11로 정세는 크게 변했습니다. 아무도 "정부"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원전도 재판소가 "안전"하다고 보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들이 전부 무너져 "속고 있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거개시를 쟁취하려면 운동의 힘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제도로는 검찰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제출하지 않아도 좋게 되어있습니다. 이래서는 "합법적으로" 원죄가 만들어지고 맙니다.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넓게 여론에 호소해 나갑시다.

호시노 후미아키(星野 文昭)씨에게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무죄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다. 내일 이라도 석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후카와(布川)사건의 사쿠라이 쇼지(桜井 昌司)씨가 무기징역형이 확정 되었을 때

고빈다씨에게 보낸 말입니다. 이말을 듣고 고빈다씨는 밝아졌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곤란하게 보여도 계속해서 싸우면 승리의 길은 열립니다. 힘냅시다.

토쿠시마면회일기

"희망과 애정을 가지고 같이 살아가고 싶다"

호시노 아키코(星野 暁子)



10월 10일 면회행동에 모인 동지들

우체 비정규직 노동조합 위원장 사이토 유스케(齋藤 裕介)씨가 면회행동

10월 10일 이날의 면회.차입행동은 우체 비정규직 노동조합 위원장인 사이토 유스케(齋藤 裕介)군을 비롯해 전부 10명에서 다녀왔다. 젊은이 대표로서 유스케군이 면회를 신청했지만 형무소 당국은 부당하게도 거부했다 (이경위와 항의의 싸움은 6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항의하는 사이 다른사람들은 차입을 하고 마스우에(増上)씨는 프리즌 워크로 형무소 주변을 돌았다. 나혼자만의 면회가 되었다. 후미아키(文昭)는 만나자마자 "한시간 기다렸어. 끈기 있게 신청하고 있었겠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어떤 상황 이었는가를 전했더니 후미아키는 마치 유스케군이 눈앞에 있는것 같이 말을 했다. "비정규직의 노동자가 운동에 서냐 안서냐는 모두가 서냐 안서냐의 지표에 걸려있다. 한번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불씨가 퍼지고 있다. 오키나와(沖縄)의 토미타 신(富田 晋)군도 비정규직의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국철 치바동력차 노동조합의 싸움을 중심으로 해서 원전 반대의 싸움과 하나로 전국의 비정규직이 운동에 나서고 있는 정세다. 사이토 유스케(齋藤 裕介)군의 싸움에 격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있다. 힘을 내주기를 바란다" 11일 이틀째의 면회다. "내일은 운동회야. 아와오도리(阿波踊り)를 추는 소학생이나 유치원 아이들등을 아키코도 볼 수 있을지도 몰라. 나는 나가지 않으니깐 면회는 괜찮아"라고 후미아키는 말했다. 이야기가 어제의 화제에 이르자 "지금의 공격은 비정규직을 90%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정부는 밀어나가면 통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더이상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후미아키는 말했다. 10.7 산리즈카(三里塚)집회의 보고를 하고 키타하라(北原)씨도 건강했던것을 전했다. "경작권을 부정한다. 재판소에게 부정시키는 당치도 않은 방법이다. 10.7 집회는 살 권리를 빼앗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시했다. 아키코의 발언은 마츠오(松尾)군이 가장 출중하다고 말했다"고 후미아키는 말했다.

"여유를 가지고 모든것에 대응하고 있다"

이야기는 요전의 "마음의 여유"의 화제로 이어졌다. "아키코에게 마음의 여유를 소중히 여기자고 말해 왔지만 나에게도 필요 했다. 무기징역이라는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불안과 초조함 여유가 없었다. 지금 여유를 가지고 모든것에 대응하며 다시한번 파악할 수 있게 된것이 제일 변한부분이다. 아키코의 비약을 보고 이제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라고 후미아키는 말했다. 12 일 면회 삼일째 운동회는 우천중지가 되었다. "면회일기 좋은 평판인것 같네. 힘을 얻었다는 사람이 많이 있어. 제일 가혹한 탄압을 받으면서도 극복해 그것을 뒤집어 풍부한 내용을 만들고 있는것에 모두 감동하고 있어" 캘린더의 시는 말이야. 다른 시도 좋지만 자하(座覇)씨를 취재한 ""우리즌""이 제일 좋았다. 전부 허가된 것이 아니라 읽고나서 감상을 쓸게. 올해는 그림보다 시쪽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 그쪽이 기뻐"라고 하는 후미아키. 그림쪽은 서서히 좋아지고 있어"하고 말했다 후미아키의 "피재지 3 부작"에 맞춘 시를 만들기 위해 취재를 했지만 후미아키는 그리 할 수 없다. 옥중에서 그릴 수 밖에 없는 제약이 얼마나 큰지를 통감한 제작이기도 했다. "사회와 미래를 만들어 가는것은 노동자 자신이다. 모두를 신뢰해 인간의 미래에 희망과 애정을 가지고 아키코와의 사랑을 느끼며 같이 살고싶다. 그것을 구가하는 듯한 11.4 11.23 으로 해 나가고 싶다. 외주화가 강행된 것을 뒤엎는 것으로 부터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다. 강행된 것으로 부터 싸움이 시작된다. 진정으로 단결한 힘을 만들어 사회를 바꿔 간다 국철치바(千葉)와 미토(水戸)동력차 노동조합에도 그런 마음으로 싸워주길 바란다 우리들도 그런 마음으로 무기징역형과 싸우고 있다"고 후미아키는 말하며 삼일째의 면회를 마쳤다.